

安正孝 小說의 휴머니티

尹 政 憲

〈目 次〉

- | | |
|--------------------------|-------------------------|
| I. 序 論 | IV. 오디세우스의 彷徨과 “實存의 故鄉” |
| II. 뿌리뽑힌 자의 悲哀와 “生存의 故鄉” | V. 結 論 |
| III. 現代社會의 俗惡性과 “安息의 故鄉” | |

I. 序 論

소설이 우리 삶의 진정성에 바탕을 둔 문제 제기와 그 해결의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진솔한 문학양식이라는데 동의할 수 있다면 안정효의 소설이야말로 이에 관한 가장 모범적인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데서 이 글은 출발의 단서를 갖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결국은 종착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복잡다단한 여정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소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종착지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음을 안정효소설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효의 소설들은 예외없이 상처받은 주인공들의 心鄕回歸構造로 이뤄져 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는 하나같이 삶의 여정 속에서 얻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그 상처는 각기 다른 요인에 의해 말미암은 것이다. 따라서 그 치유의 방법과 과정이 같을 수 없으며 상처받은 영혼을 거둬줄 마음의 고향(心鄕)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자리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결코 멀쳐버릴 수 없는 끈끈한 유대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 안정효 소설의 참다운 미학은 여기에 그 든든한 뿌리를 두고

있다. 즉 각기 다른 상처와 이를 수습할 서로 다른 마음의 고향을 가진 이들이 “참다운 휴머니즘의 제고”란 순백한 작가정신에 의해 동일한 종착지에서 수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화합의 조짐은 이들이 찾아가는 서로 다른 마음의 고향이 더 이상 신에게만 기댈 수 없는 인간성 상실의 이 시대를 밝혀 주는 마지막 기대의 지평이며 이들이 작가의 체험적 혹은 주변적 분신이라는데서 그 절박함과 설레임을 더하게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안정효 소설을 관통하는 “상처받은 주인공의 心鄕探索過程”을 조명하고 나아가 그 소설미학의 실체를 구명하기 위하여 씌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안정효 소설의 근간이기도 한 휴머니티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II. 뿌리뽑힌 자의 悲哀와 “生存의 故鄕”

<은마는 오지 않는다>(1990, 고려원; 원제:<갈쌈>(1987, 책세상))¹⁾를 위시한 일련의 작품들에서 작가는 주인공들의 삶이 생존의 터전에서 물러서지 않으려는 처절함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삶의 무게가 현실을 짓누를수록 생존의 고향을 지켜려는 그들의 영혼은 가일층 강인해지며 그 고향의 의미는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정신적 지주로서의 상승작용을 하게 된다.

<은마는 오지 않는다>의 젊은 과부 언례는 어린 남매(만식과 난희)를 거느리고 전쟁(6. 25동란)의 한복판에 서게 된 비운의 여인이다. 생존의 기둥인 남편을 잃고 강원도 오지마을(錦山里)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이미 상처를 간직한 여인이다. 그런 그녀에게 있어 어린 자식의 양육은 분명 힘겨운 집이다. 그러나 언례의 옆에는 황노인네를 비롯한 이웃이 있기에 그 상처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그녀의 짐은 얼마간 가벼워질 수 있었다. 언례의 세 식구가 살고 있는 밤나무집은 나름의 평온과 안식이 깃든 곳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밤나무집의 평화가 언제까지나 계속되기엔 전쟁은 너무나 추악한 것이었다. 인민군의 패주와 함께 錦山里에

1) 작가의 회고에 의하면 이 작품은 서강대 재학 중이던 1964년 여름방학, 강원도 춘성군 서면 금산리 “황면장대”에 기거할 무렵, 어린 시절의 추억을 끌어와 구상의 발판을 삼은 것이라 한다.

도 유엔군이 진주하게 되고 마을사람들은 강 건너 읍내에서나 대할 수 있었던 전쟁을, 코큰 서양군인 “뽕코”와의 조우를 통해서 생활 속의 체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던 어느밤 나무터의 첫번째 집인 밤나무집에 들어닥친 두 명의 뽕코 병사에 의해 언례의 육체는 무참히 유린당하고 전쟁의 와중에서 그녀는 또 하나의 외로운 전쟁을 치르게 된다. 밤나무집의 든든한 동지요 후원자였던 황노인집으로부터 이제 언례는 일거리를 얻을 수도 없고 찬돌엄마를 비롯한 동네아낙들과 같이 마실을 나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만식이도 동네아이들과 어울려 놀 수 없게 된 것이다. 처음엔 자신들의 화를 대신 치른 언례의 불행에 가슴 아파하던 마을사람들이 점차 그녀를 “불결”해 하며 경원함에 따라 언례일가는 마을의 외톨이로 생존의 기로에 처하게 된다.

잊혀져 가던 언례의 상처는 뜻밖의 봉변과 그보다 훨씬 감당키 어려운 시련 속에서 견잡을 수 없이 도지기 시작하고 그 상처가 이제 생존을 위협해 옴에 따라 그녀는 분연히 일어선다. 그리고 적이 되어버린 마을사람들에게서 벗어나 언례가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생존의 방편은 中島(가운대섬)의 텍사스촌과 금산리를 오가며, 양공주로 나서는 길뿐이다. 그런 그녀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멸시와 조소가 노골화되어 질수록 생존을 위한 그녀의 투혼은 가일층 치열해지고 오히려 “양군인을 손님으로 받아야 하는 건, 그 짓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 부여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언례의 적극적인 삶의 대응은, 마을의 체통을 위해서라도 이곳 금산리를 떠나라는 터춤투대감 황노인의 엄중한 경고를 되받는 그녀의 가시돌힌 항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당신들이 나를 냉대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취한 행동을 놓고 나를 욕하지는 말아요. 그리고 나더러 떠나라는 소리도 하지 말고요. 난 죽을 때까지 이곳에 남아서, 이 마을 사람들을 두고두고 미워할 결심을 했어요…….”²⁾

텍사스촌에 첫 발을 디딜 때, 죄를 짓듯 떨며 어색해 하던 언례의 톤(tone)이 그녀의 후원자였고 마을의 절대자인 황노인 앞에서 이만큼이나 높아질 수 있게

2) <온마는 오지 않는다>, (1992, 고려원), p.215.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전쟁의 와중에 젊은 과부에게 가해진 깊은 상처는 곧 생존을 위한 처절한투쟁으로 연결되었고 연례의 그런 싸움이 힘에 겹고 외로울수록 생존의 고향을 회구하는 의지는 누구도 꺾지 못할 절대적인 가치로 부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사장의 권리금>(1988. 2, 동서문학)과 <포장장터의 두 거지>(1986. 1, 문학사상)는 최소한의 기본적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고 생존의 고향에서 멀어지려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이다.

<김사장의 권리금>에서는 어떻게든 살아 보려 발버둥치는 밀바닥 서민 김사장이 주변 인간군상의 장벽 속에서 펼치는 힘겨운 싸움을 그리고 있다. 포장마차 김사장은 “방울떡 장수 딱부리 아주머니”에게 26만원의 당당한 권리금을 주고 장터 초입에 자리잡았지만 항상 고무신가게 윤사장에게 떳떳할 수 없는 마음의 빔을 지고 있는 느낌이다. 그것은 장터 초입의 명당자리에 몰려드는 손님들을 충분히 수용하기 위해 새로 만든 “큼지막한 세 바퀴짜리” 포장마차가 윤사장의 고무신가게 앞길을 잔뜩 막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고무신가게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쳐 장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윤사장의 영토권 시비의 빌미가 되었을 뿐 아니라 포장마차 손님들의 고무신 가게 앞 방노라는 또 다른 부수적인 문제까지 파생시켜 심각한 김사장의 입장을 지극히 난처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흔히 잘 되는 장사를 눈 앞에 보면서도 포장마차를 잘라낼 마음은 요만치도 없는” 김사장이 윤사장의 기세에 무한정 밀려, 뚝심으로 버티는 것조차 수 아주머니의 영토로 넘어들 수도 없는 형편이라 그의 처지는 그의 삶만큼이나 절박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우연한 기회에 윤사장의 정숙치 못한 부인 “날라리”의 외도현장을 목격한 김사장은 마음의 빔을 갇을 요량으로 윤사장에게 연락하려 서두르다 그만 생존의 터전을 짓밟히는 惡手를 두게 된다. 윤사장을 전화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날라리”의 정사는 엉뚱하게도 장터사람들의 입방아거리로 부상하게 되었고 만성이 되어버린 아내의 외도보다도 못사람의 놀림감이 된 데 격분한 윤사장의 응징이 전혀 의도와는 달리 김사장에게로 가해졌던 것이다.

쓸데 없이 이놈이 주둥아리를 놀리는 바람에 나만 망했다고 믿으며 윤사장은 포장마차를 뒤집어엎고, 오징어와 우렁행이와 오뎡과 참새와 닭똥집과 은행알을 마구 짓밟고, 소주병을 닥치는 대로 깨뜨리고, 진정하세요, 이러지

마시고 말로 합시다 하며 말리려고 덤벼드는 김사장을 또 두들겨 패었다.³⁾

결국 김사장은 살기등등한 윤사장부부에 의해 명당자리에서 밀려나 권리금도 챙기지 못하고 장터를 떠나게 된다. 동병상련의 처지를 위로받고 보호받아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당한 폭력은 삶의 뿌리마저 흔들리게 하는 혹독한 것이었다. 밀바닥 인생의 상흔을 덧나게 하는 또 하나의 쓰라린 상처는 김사장이 사수하려는 생존의 고향을 더욱 애절하게 부각시킨다. 생존의 터전을 지키려는 눈물겹도록 정성어린(?) 집착이 도리어 그 터전을 잃게 한다는 생존의 아이러니 앞에서 김사장의 포장마차는 상처투성이의 영혼을 인도하는 절대절명의 상징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

<학포장터의 두 거지>는 경상남도 어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소설화한 것이다. 그런 만큼 이 작품에 등장하는 “땅군”과 “귀머거리 여자거지”의 비극적 삶은 우리 시대의 질곡과 절실하게 맞닿아 있다. 학포(鶴浦)장터에서 거지생활로 연명하고 있는 고아출신의 “땅군” 김만돌에게도 한 때 왕초로 날리던 화려한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환영과 더불어 쓰라린 상처로 그의 뇌리에 남아 있다. 대구 침산동 철로변의 거지왕초로 군림하던 땅군의 인생에 금이 가게 된 것은 “공연히 거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흉내”내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밀바닥 인생의 자립을 도우려 서울의 버젓한 대학을 졸업하고 거지사업에 뛰어드는 “학짜”의 열성에 설복당한 땅군은 그의 생존무대였던 대구를 순순히 버릴 수 있었다. 그리고 학짜의 인도에 따라 휘하의 거지와 창녀(그들은 대구를 떠나기 전 학짜의 주례로 날치기 합동결혼식을 올린다.)를 거느리고 월성군 명치읍의 산비탈 국유지에 생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얼마 동안 그들은 야산을 개척하는 노고 뒤에 따르는 뿌듯한 소유감에 난생 처음 생의 환희를 맛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애초부터 한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명치 자활 개척의 마을”이란 이름 아래 일전 정착에 성공하려 할 즈음에 지역개발을 내세운 행정당국의 철거령이 떨어진 것이다. 땅군네 식솔들은 학짜의 독려 아래 이를 결사적으로 저지하지만 개발추진회에 매수된 대부분의 동지들이 이탈하게 됨에 따라 결국 생존의 터전을 마련하려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과거의 영화(?)를 되새기며 학포장터로 홀려 들어와 만년의 거지생활을 영

3) 김사장의 권리금, <동생의 연구>(1990, 책세상), P.129.

위하던 땅군에게 어느날 뜻 밖의 횡재가 닥치고 잃어 버렸던 땅군의 꿈이 되살아난다. 학포장터에 느닷없이 나타난 귀머거리 여자거지와 살림을 차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입덧을 시작하자 땅군은 예의 수동적인 거지의 모습에서 일을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생활인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된다. 평생 이루지 못할 것 같던 가장과 아버지의 꿈이 한꺼번에 이뤄지려는 시점에서 땅군의 미래는 더 없이 밝아지고 그만큼 생에 대한 애착은 강렬해진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 여자에게 잘 먹이고 싶은 생각에 까짓 무슨 짓인들 못 하라 싶었고 리어가 하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테니까 정말 좋겠다고 어렵도 없는 헛된 망상을 품어보기도 했다.⁴⁾

그러나 땅군이 일나간 사이, 만삭의 몸으로 거울뿔감을 구해오던 귀머거리 아내가 익사하게 됨으로써 땅군의 꿈은 다시 한 번 산산조각나고 만다. 개척지의 실패를 답습치 않으려 혼신의 정성을 쏟았던 땅군의 노력은 비장한 생존의 철칙만을 상기시키며 아픈 상처로 그의 가슴에 와 닿을 뿐이다. 땅군에게 있어 생존의 고향은 그만큼 멀고도 아련한 피안의 세계에 위치한 것이며 그렇기에 그 회구는 그만큼 더 절박한 것이다.

무명 연극배우의 삶의 애환을 고백체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꿈과 땅콩>(1987. 8, 문학정신)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우리 사회 밑바닥 공연예술인들의 삶이 생존을 위한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의 화자요 주인공인 여배우가 겪어야 했던 많은 에피소드들은 연극에 대한 일반인의 무지와 그릇된 사회풍토가 연극인의 피곤한 삶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순수한 연극에의 열정으로 배우가 되었던 주인공이 “여자에게 영혼까지 바치는 깊은 사랑을 하면 예술적인 순수성이 깨져 속인이 된다”는 선배연기자에게 농락 당하고, 만취관객의 희롱거리가 된 “땅콩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환상의 연극무대를 미련없이 떠나 현실세계의 생존을 노크하게 된다는 줄거리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처받은 한 예술인의 처량한 생존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이들 작품에서는 주인공에게 가해진 상처가 일상적 삶의 저

4) 학포 장터의 두 거지, <학포 장터의 두 거지>(1990, 고려원), p.52.

변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결국 멀어져 가는 생존의 고향을 붙잡으려는 그들의 처절한 싸움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예기치 않은 재난에 양공주로 변신하면서까지 더욱 강인한 생존의 법칙을 터득해 나가는 <은마는 오지 않는다>의 언래, 생존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윤사장 부인의 외도도 예사로울 수 없었던 <김사장의 권리금>의 김사장, 움집이긴 하지만 난생 처음 가져보는 家庭에 거렁뱅이질도 즐겁기만 했던 <학포장터의 두 거지>의 땅군, 연극무대를 생존의 발판으로 삼으려 발버둥치는 <꿈과 땅콩>의 여배우 등은 모두 우리 시대, 뿌리 뽑힌 영혼들의 초상에 닮아있다. 그리고 이들의 상처가 바로 이들을 둘러싼 이웃들—금산리의 마을사람들, 윤사장부부를 비롯한 장터사람들, 땅군을 배신하는 거지식술들, 여배우의 선배연기자들과 관객들—이 행사한 유형 무형의 폭력에 의해 말미암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삶의 변주는 그만큼 외롭고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작품이 외향적 화자에 의해 인물과 인물 간의 대외적 갈등을 조정시키면서 냉정한 작가적 시선을 배면에 깔고 있음은 아득한 생존의 고향을 가장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기제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획득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III. 現代社會의 俗惡性和 “安息의 故鄕”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의 삶이 점차 안락해 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안식처가 줄어들어 간다는 서글픈 현실은 이제 문학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생의 연구>(1988 가을, 실천문학)를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추스릴 곳을 찾아 헤매는 우리 이웃의 실루엣을 만나게 됨은 껍이나 의미심장한 일이며 그 소설적 가능성에 유난한 관심이 기울어진다. 이들 작품에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작중인물들의 상처가 그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현실세계의 뒤틀리고 비뚤어진 속악성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며 그것은 곧 도시화, 기계화, 비인간화로 대변되는 현대의 사회적 제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동생의 연구>는 풍릉처럼 비대해진 현대산업조직의 뒤안길에서 어처구니없이 희생되어 버린 한 순수한 영혼의 이야기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오선진이 겪게

되는 노동쟁의의 과정은 노사분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피상적이며 도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를 상기시킨다.

42명의 다른 연수자들과 함께 오과장이 끌려간 미포연수원은 논산훈련소의 배출대를 연상시키는 인간성 살륙장이었다. 거대한 조직의 힘 앞에 개개인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인격 처형을 당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곳은 말하자면 굴욕감과 권태를 건디지 못해 사람들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게 만드는 기능을 갖춘 무작정 대기소였다.⁵⁾

한국 굴지의 조선회사 플랜트 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공고출신의 오선진은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밀어닥친 감원선봉에 휩쓸려, 자진퇴사의 명분축적용으로 행해진 연수교육의 대상자가 된다. 연수과정에서 13년간이나 순종하며 봉사해 온 회사의 비정함과 교활함에 연약하고 선량했던 선진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는 마침내 노동운동의 지도자로 변모하게 된다. 그리고 “이 큰 회사에서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들도 밟으려는 그 발을 있는 힘을 다하여 물어뜯을 수밖에 없다”며 강인한 의지로 회사의 압력과 회유에 맞서게 되고 그 결과 다른 계열회사로 전출하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자신의 전출이 투쟁동지들에 대한 배신이며 결국은 회사에 대한 봉사로의 복귀라는 이율배반적 사실에 괴로워하던 그는 곧 사표를 내고 진정한 쟁의의 대변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노무사 시험준비에 매달린다.

고도성장의 허울 좋은 미명아래 거대한 경제권력의 횡포에 짓밟히면서 가족들에게 무능한 가장으로 시달려야 하는 오선진의 처참한 영혼이 마지막으로 귀의할 곳은 정녕 노무사예의 꿈뿐이었던 것이다.

<회귀>(1988 봄, 불교문학). <황야>(1991, 문학정신). <미국인의아버지>(1990, 현대소설)는⁶⁾ 모두 미국이민을 소재로 다루면서 현대인의 진정한 안식처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이 작가의 미국여행기

5) 동생의 연구, <동생의 연구>, p.235.

6) 이 작품들은 오늘날 우리 이민사회의 현상적 실체를 문제적 시각에서 총위별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다양한 관점으로 견인, 확산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화려한 코리언 타운의 이면에는 고향 잃은 자들의 뿌리 찾기가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코리언 시오니즘”(korean-zionism)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간 동안의 체험적 산물이라는 데서 오늘날 미국교민사회의 절실하고도 구체적인 영상으로 우리에게 다가 오게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며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된다. 그것은 이제 우리사회에서 조용히 청산되어 가는 “아메리칸드림”(American-dream)증후군의 한 단면을 통하여 결국은 각자의 마음 속에 안식의 뿌리를 둘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절실한 고뇌를 깊이있게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귀>와 <황야>에서 우리는 지난날 군사정권하의 조악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피안을 찾아 조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지식인의 모습을 대하게 된다.

<회귀>의 국문과 교수 조덕문은 “격렬한 학생 운동과 행정당국의 강압적 정책”사이에서 진실로 자유로워지기 위해 양측을 다 같이 공박하는 양비론적 양심선언을 감행한다. 그러나 자신을 해방시켜 주리라 기대했던 이 선언은 오히려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었던 그를 양측의 무차별 공격대상으로 노출시키게 하였고 결국 그는 대학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 후 “너무 넓어 한 가지 충격의 파급 효과가 적고, 아늑한 완충지대가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국제결혼한 여동생을 쫓아 단신 渡美하지만 미국도 결코 그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생계활동의 애로와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기세계를 건설해 놓고 분명한 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학동창들과의 괴리감,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으로서의 그의 존재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줄 뿐이다. 대학시절 짝사랑했던 혜자(베로니카)의 국제결혼을 확인한 후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져 기댈 곳이 없어짐을 절감한 덕문은 결국 귀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그는 삶과도, 자신과도 이제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냥 과거의 세계로, 태어나지 않은 자궁 속의 세계로, 그리고 그 이전 시대대로 환원이 가능하다면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었다. 어디에서도 살아갈 자신이 없어진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무작정 상경하여 창녀가 된 시골처녀처럼.⁷⁾

그러나 상처를 준 고향으로 돌아오는 덕문이 과연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는 여전한 의문으로 남는다.

7) 회귀, <동생의 연구>, p.189.

<황야>의 진학은 공안통치의 폭력이 탄생시킨 희생양의 본보기이다. 유신정권 초기에 반정부 회곡을 썼다가 대공과 형사들에게 무참한 곤욕을 치르고 미국으로 오게 된 진학의 조국에 대한 증오와 금지되었던 예술인의 무너진 자존심이 그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어떤 식으로 고통의 전이를 가져다 주는가를 이 작품은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고문에 굴복한 남편의 수치감으로 인해 그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을 당해야 하는 세화, 친구의 고통을 씻어 주기 위해 이민의 길을 열어주고도 항상 착잡하기만 한 상호, 그리고 자신만을 확대하는 초라한 망명객으로 변한 친구와 서먹한 해후를 해야 하는 병구, 이들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진학의 “환상적 고뇌”는 “소아마비에 걸린 정치의식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조국”에의 망령에서 비롯된 “역사적 현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 앞에서 이들의 영혼을 거둬줄 곳은 쉽사리 보이지 않는다.

<미국인의 아버지>는 너무나 쉽게 미국화되는 가족들과 보조를 맞출 수 없어서 낯선 미국땅이 더욱 무정하기만 한 移民家長의 비애를 그리고 있다. 아내의 강권에 못 이겨 처가식구들과 함께 미국이민을 오게 된 한우식은 “오리엔트 투어”란 관광회사로 정착에 성공한다. 그러나 남편을 무시하고 자유분방한 미국사회에 재빨리 적응해 나가는 아내와 그런 엄마를 닮아 고루한 아빠를 경멸하며 완전한 미국인으로 성장해 가는 딸 사이에서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 지진이 일어난 날 여고생 딸 미아(美雅)의 책상서랍에서 우연히 콘돔봉치를 발견하게 된 우식에게 “러비도 준비해 두지 않았다가 프러그엔트되거나 AIDS라도 걸렸으면 좋겠”냐고 양칼지게 대드는 미아를 통해 코메리컨의 피폐한 영혼을 감싸줄 곳이 절실함을 작가는 말하고 있다.

서울(마포)토박이 작가 안정효는 맑은 공기와 훈훈한 인정을 자랑하던 그의 고향이 급격한 현대화의 홍수 속에서 오늘날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이 도시가 안고 있는 진정한 문제는 무엇인가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혼선>(1990, 레이디경향) · <창>(1988. 9, 동양문학) · <숨바지>(1987, 실천문학) · <커피와 할머니>(1985. 11, 샘이 깊은 물) 등은 그런 작가의 관심이 자칫 사소하게 보아 넘길 수도 있는 도시의 원초적 속악성과 연계되어 잘 드러나고 있는 작품들이다.

작가의 직접체험을 토대로 허구화했다는 <혼선>은 일상의 무료함에서 벗어나 고된 한 부자집 사모님의 외도를 미끼로 걸려온 협박전화를 전화의 혼선으로 인

해 우연히 듣게 되는 셀러리맨 부부의 이야기이며 <창>은 사무실 창밖 저택에서 벌어지는 도시의 파행적 생태에 고달픈 자신의 허상을 투영시켜 보는 가난한 직장처녀의 가슴 매이는 도시풍속 보고서이다.

남의 집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전화의 도청으로 알려주는 형식을 취하는 <혼선>과 창밀 저택의 일상사를 제3자의 관찰에 의해 서간체 고백형식으로 사건화하고 있는 <창>은 그 超情的 敘述方式으로 인해 윤리부재와 인간성 상실의 막다른 골목으로 흡입되어가는 도시사회의 그늘진 구석을 객관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숨바지>와 <커피와 할머니>에서는 도시의 살풍경한 적막과 기계적 삶이 노인들의 일상적 생활을 어떤 식으로 움아매고 있는가를 해학적으로 조명해 보이고 있다.

<숨바지>에서는 자식들의 무관심과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강에 투신했으나 숨바지가 부풀어 올라 목숨을 건지게 되는 우리 이웃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커피와 할머니>에서는 시계를 볼 줄 몰라 도시의 가정부자리에서도 밀려나는 한 순박한 시골할머니의 모습을 대면하게 된다.

이 작품들이 한갓 우스개 소리로 치부될 수도 있는 자그마한 에피소드의 현현을 통해 우리의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일게 하는 것은 작가가 시종 측은한 눈동자로 이들을 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늘을 사는 도시의 소외된 이웃들에겐 이들의 고달픈 영혼을 어루만져줄 포근한 안식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그것은 그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작품들에서 주인공들의 고통으로 얼룩진 상처는 그 진원지가 어디였든-기업의 횡포(<동생의 연구>), 독재정권의 폭력(<황야>), 개인에 가해진 집단의 압력(<회귀>), 가정을 파괴하는 현대의 이기주의(<미국인의 아버지>), 도시사회의 정서적 황폐화(<혼선>, <창>), 도시문명의 바인간성(<숨바지>, <커피와 할머니>)-모두 다변화되고 물질화되어가는 현대사회의 병폐가 초래한 것들이었고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제 물질적 풍요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안식으로서의 공간임을 작가는 초연하게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주인공 측근의 3인칭 관찰자들-<동생의 연구>에서 실직한 동생의 정신적 지주인 오교감, <황야>에서 진학의 친구 병구, <혼선>에서 전화를 통해 협박을 듣게 되는 호준 부부, <커피와 할머니>에서 할머니의 도시적응을 안스럽게

지켜 보는 민교수—에 의해 때로는 안타까우면서도 때로는 냉정한 톤(tone)으로 그들의 아픈 상처와 절박한 고뇌를 표출시키고 있는 것은 오늘을 살아 가는 독자들에게 훨씬 강한 생활의 메시지로 마음 속 깊이 와 닿게 된다.

IV. 오디세우스의 彷徨과 “實存의 故鄉”

안정효 소설의 내면적 깊이는 인간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하얀 전쟁>을 위시한 일련의 작품들에서 그는 과거와 현재, 현실과 몽상 사이를 넘나들면서 상처받은 영혼의 뿌리가 인간의식의 심연에 근거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존주의적 정서는 越南戰이란 가장 근자의 허무주의적 체험공간에 작가가 직접 몸담았다는 데서 필연적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들 작품에서 지난 날의 과거에서 비롯된 상처 때문에 온전한 자신을 회복치 못하고 오디세우스적 방황을 거듭하면서 스스로 부조리와 허무의 세계로 투신하게 되는 주인공들을 창출해 내게 된다. 트로이전쟁에 참전했던 이타카 출신의 전쟁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 아내 페넬로피와 아들 텔레마커스의 영접을 받으며 그의 궁전을 되찾기까지엔 무려 이십년간의 고된 방황이 필요했다. 실로 그 여정은 목숨을 건 긴 사투의 연속이었고 오디세우스의 지친 영혼을 위무하기엔 그 어느 것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그의 상처는 깊고 큰 것이었다.

따라서 오디세우스적 허무와 절대적 무의미에서 출발하는 주인공들의 방황은 그 극대화된 불안과 고뇌의 배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실존적 상황 설정은 이들의 방황이 언젠가는 무의미를 의미로 바꿀 수 있다는 작가의 처절한 낙관론에 힘입은 것이기에 이들의 행보를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항상 우울할 수만은 없게 된다.

안정효의 출세작 <하얀 전쟁>{1부 전쟁과 도시(1983, 실천문학), 2부 전쟁의 숲(1991, 시사토피), 3부 에필로그를 위한 전쟁(1993, 고려원)}⁸⁾은 10년의 세월

8) 이 작품은 원래 1983년 『실천문학』에 연재되었던 <전쟁과 도시>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근자에 작가가 <전쟁과 도시>에서 동료를 오인살해하고 탈영병이 되어버린 채무점상병의 정글도피생활을 다룬 <전쟁의 숲>과 변진수를 죽인 후 감옥에서 출소한 한기주가 25년만에 베트남을 찾아가 악몽의 흔적을 더듬는 <에필로그를 위한 전쟁>

을 두고 씌어진 3부작 장편소설이다. 그런 만큼 이 소설은 현존하는 최대, 최악의 인위적 재난인 전쟁에 대한 인간의 시각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흘러간 젊은 시절의 전쟁체험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오랜 동안 구속하며 또 戰後의 삶에 어떠한 건인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은 과거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계속한다. 그 전쟁은 합리주의적 세계관으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무의미하며 소모적인 것으로 비춰진다.⁹⁾ 그리고 탈영병 채무겸의 정글생활을 그리고 있는 2부와 25년만에 다시 베트남을 찾아 가는 한기주의 시간여행을 다룬 3부보다는 1부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게 되는 것은 바로 상처받은 영혼들이 벌이는 이 戰後戰爭의 치열함 때문이다. 越南戰後의 한국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해 허덕이는 두 귀향병 한기주와 변진수의 방황은 그들이 과거로 가는 시간의 수레바퀴 위에 걸터 앉아 있는 한 쉽사리 그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과거에서 도망치려면 그럴 수록 그 환영은 더욱 견고히 그들을 붙들어 맨다.

그 베트남을 죽이고 나는 혼장을 댔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인의 생명을 파괴했다는 전율이 무서웠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으리라는 두려움에서 언젠가는 그 보복을 받으리라고 느꼈다.¹⁰⁾

한기주의 예감대로 귀국 후 그는 내내 그 “보복”에 시달린다. “키보다도 많은 158의 지능지수”를 가지고도 그는 출판사 제3부장에서 한직인 판매기획촉진부장으로 밀려나야 하고, 아이도 없이 불신의 성을 쌓아만 가던 아내와는 끝내 이혼의 막다른 골목으로 치달아야 할 뿐 아니라 어느 여자와도 정상적 육체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전쟁의 허무와 존재의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뿌리 깊은 무력감 때문이다. 그런 그에게 그보다 훨씬 더한 전쟁후유증을 앓는

을 각각 발표함으로써 3부작의 연작형식을 띠게 되었다.

9) 이에 대해 송승철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실존주의적 자기합리화는 일종의 과잉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면 한기주와 변진수의 戰後人生의 의미를 색다른 시각에서 평가하기도 한다. 송승철, 베트남전쟁 소설론, <창작과 비평>(1993, 여름), p.88.

10) <하얀 전쟁>-제1부 전쟁과 도시-, (1992, 고려원), p.175.

전쟁동료 변진수의 출현은 그 고통의 상처를 배가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결국 권총을 갖고 와 전쟁으로 파괴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변진수의 청을 한 기주는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들어주게 된다.

대리전쟁에서 우리들은 죽음의 손익계산서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들이 백지답안지를 낸 전쟁시험이었다.…… 아무 자취도 남기지 못한 하얀 전쟁을, 하얗기만 한 악몽을 견디고 겨우 살아서 돌아왔을 따름이었다.…… 변진수의 전쟁은 언제 끝나려나? …… 전쟁을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내가 죽여줘야 오히려 자비를 베푼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괴된 인간이었고, 전쟁을 이겨내지 못한 변진수는 그 패배의 형벌을 누구에게서인지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¹¹⁾

한기주가 변진수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들의 전쟁은 비로소 종말을 고하게 되고 과거의 무의미는 미래를 위한 의미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가을바다 사람들>(1985, 고려원)과 <미늘>(1990, 문학정신)은 과거의 얼룩진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해 방황하는 중년의 두 사업가를 통해 인간의 근원적 존재 의미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가을바다 사람들>에서 광고회사 사장 신해방은 어느 날 불현듯 가을바다로의 여행 충동을 느끼고 길을 나선다. 그러나 속초로부터 동해안을 따라 태안반도의 회포리로까지 이어지는 바닷길 여정을 통해 그의 의식의 심연에 감춰져 있던 여행의 동기가 차츰 드러나면서 이것이 단순한 충동에 의한 우발적 길떠남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진다.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의 궁핍한 삶과 아버지의 사고, 천문학을 전공한 대학시절과 광고회사의 취직, 그리고 출세를 위한 타락과 비열한 방법으로의 광고회사 인수, 회사경리 정미옥과의 절실하지 않은 결혼, 아이의 죽음과 아내에 대한 정신적 학대, 우연히 만난 손선희와의 소모적 애정행각 등 과거의 모든 행적은 신해방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자리하고 있다. “세월과 과거의 죄악과 살아온 얼룩”에서 기인한 그의 냉소적 회오는 바닷가에서 만난 비슷한 상처를 간직한 또 다른 순례자(?)들—가족과 사별한 유정희, 채무를 뒤집어쓰고 도망자가 된 민태순, 단조로운 일상의 삶에서 탈출하려는 금진택, 어

11) Ibid, pp.330~331.

딘가 모를 어두운 인생의 그림자를 진 별장지기-과의 어울림 속에서 극대화된다. 그리고 가난한 어부의 아들에서 성실하고 순수한 셀러리맨을 거쳐 결국엔 사악한 사업가로 변신하게 된 자신의 추악한 허물을 벗어던지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내기에 이른다.

나는 추악한 흔적을 남겨 놓은 땅으로, 죄악의 역사가 적힌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어둠의 공간으로 한없이 헤엄쳐 들어가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다…… 살아가노라고 지은 모든 죄와 남들에게 주었던 모든 고통과 마무리 짓지 못한 모든 일에 대한 속죄를 죽음으로써 할 터이기 때문이다.¹²⁾

별이 밝은 어느 가을밤, 바닷가 백사장에 옷을 파묻고 마침내 죽음으로 이르는 마지막 여행-자살을 위한 바다 유영-을 떠나게 됨으로써 신해방은 비로소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해방되게 된다.

<미늘>의 백화점 사장 서구찬은 부자인 큰아버지의 양자로 자라나면서 몸에 배게 된 ‘남의 삶을 공짜로 살아가는 듯한 즐겁지 않은 기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구속시키는 인물이다. 유년시절부터 비롯된 구찬의 이러한 채무감과 속박감은 그를 이상적 결벽주의자로 성장케 하여 불행한 결혼생활의 원인으로 작용케 한다. 그의 이상이 설정해 놓은 관념의 덫에 지극히 정상적인 세속의 삶을 사는 아내 재명은 무한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잠자리에서 정숙하지도 않고 사촌들과의 재산싸움에 초연하지도 않은 아내에게서 “상습적 도망자”가 되어버린 구찬은 도망지에서 만난 발랄한 처녀 수미를 통해 허전함을 달래려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불륜을 눈치챈 아내와 수미 사이에서의 갈등으로 또 다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는 추자도로 낚시여행을 가게 된다. 거기서 “똥여”란 위험한 포인트에 앉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낚시광 한전무를 통하여 행복은 “설정된 이상이 아닌 평범한 생활”에서 온다는 진리를 터득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가정과 수미를 파멸시킨 자신의 잘못된 관념을 스스로 용서할 수 없게 된 구찬은 물이 빠지지 않으면 살아 나올 수 없는 “똥여”를 다시 찾아 간다. 마침내 구찬은 유년시절로부터의 끝없는 방황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자유를 쟁취하게 되는 것이다.

12) <가을 바다 사람들> (1992, 고려원), p.298.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1992, 민족과문학사)에서 임병석의 삶도 “빠들어진 관념의 균형”을 잡지 못한 방향으로 일관되고 있다. 학창시절부터 비롯된 영화에 대한 편집광적인 집착은 그를 영화와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도착적 인간으로 살아가게 한다. 결국 병석은 한국전쟁 직후의 황폐한 사회문화상이 배출한 기형적 표본에 다름 아니다. 영화의 환상만을 좇는 병석은 끝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밑바닥 생활을 전전하다 자신의 꿈의 결정체인 자작 시나리오 [무책임한 두 주일]을 친구인 영화감독 윤명길에게 맡기고 어이 없는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한다. 화려한 영화의 환상 속에서 살면서 냉혹하고 사악한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던 “헐리우드 키드” 임병석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문화부재시대의 한 영악하지 못한 순수한 영혼의 세계에 성큼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이들 작품에서 작가는 등장인물들의 숨통을 죄어 오는 인간조건의 다양한 양상—전쟁의 악몽(<하얀 전쟁>), 생활 속의 죄악(<가을바다 사람들>), 유년에서 비롯된 강박감(<미늘>), 현실과 환상의 도착(<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들을 통해 현상의 부조리와 허무를 극복하려는 인간정신의 치열함을 예각적으로 제시해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개인의 구체적 실존은 끊임 없는 상황내적 고뇌를 통해 확인되는 것임을 여실히 증명해 보인다.

따라서 절대적 무의미에서 비롯되는 인물내부의 심리적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1인칭 주인공 시점(<하얀 전쟁>, <가을바다 사람들>)과 내향적 화자를 서술의 축으로 활용하면서 현재의 상처의 진원지로서의 과거의 의미를 반추하기 위해 과거회상의 나라타쥬(narratage)수법을 곁들이고 있음은 內省的 小說의 든든한 지평을 열어 보인 것으로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백과사전식 지식—박물적 정보와 정글의 생태학(<하얀 전쟁>), 천문학(<가을바다 사람들>), 낚시(<미늘>), 영화(<헐리우드 키드의 생애>)—의 나열과 자전적 요소—월남전 참전과 ‘브리타니커’사 근무(<하얀 전쟁>), 낚시와 여행의 생활화(<가을바다 사람들>, <미늘>), 광적인 영화감상과 자료수집(<헐리우드 키드의 생애>)—의 삽입을 통해 자칫 이완되어질 수 있는 내성적 소설의 서사적 탄력을 감당하고 있음도 괄목할 만한 기법적 성과로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작품들은 인간존재의 근원적 성찰이란 작가의 의도에 깊이있게 부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V. 結 論

지금까지 우리는 안정효의 소설이 “상처받은 영혼의 고향 찾아가기”의 과정을 다루고 있음을 구체적인 작품의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그리고 이들 상처받은 주인공들이 궁극적으로 그리는 “마음의 고향”은 그들이 각기 상이한 상처의 진원지를 가짐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은마는 오지 않는다>를 위시한 일련의 작품들에서 주인공들의 상처는 생존 그 자체의 처절함 속에서 비롯되어진 것이었고 그런 만큼 이들이 추구하는 마음의 고향은 절박한 생존의 터전으로서의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동생의 연구>를 위시한 일련의 작품들은 주인공들의 상처가 현대사회의 왜곡되고 훼손된 질서체계 속에서 말미암은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의 피폐한 영혼을 감싸줄 안식의 공간으로서의 마음의 고향이 그 외로운 가슴 속에 대두되게 된다.

<하얀 전쟁>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들은 그들의 존재의미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게 하는 과거에서의 상처 때문에 現狀의 苦痛 속에서 방황하는 인물들을 깊이 있게 묘사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마음의 고향은 개인의 구체적 실존을 위한 卽自的 空間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찾아가는 일견 서로 상이한 목적지는 기실 모두 작가 안정효의 따스한 손길에 의해 감싸여 있음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이들의 상처가 깊고 고향이 멀더라도 작가는 쉽사리 그 손길을 거둬들이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서로 다른 “마음의 고향”에는 공히 작가의 훈훈한 체취가 배어 있게 된다. 결국 안정효 소설의 상처받은 주인공들은 모두 온후하고 강인한 재질로 단장된 인간공정의 포근한 무대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소외 당하고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 연례의 겨울이 언제까지나 추울 수 없고 (<은마는 오지 않는다>) 대기업의 횡포에 쫓겨난 오선진의 고군분투가 언제까지나 외로울 수 없으며 (<동생의 연구>) 옛 전우를 죽여야만 하는 한기주의 상처받은 영혼도 언제까지나 방황할 수만은 없게 되는 것(<하얀 전쟁>)이다.

따라서 안정효의 소설텍스트에서 읽혀지는 인간성 제고의 순백한 메시지에 눈감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온 “마음의 고향”은 작품 속의 신거루로 증발해 버리고 말게 된다. 안정효 소설의 진정한 미학은 휴머니즘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비롯되어 지게 되는 것이다.

안정효는 1941년 서울 공덕동의 시장골목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유년시절 그는 민족사의 비극인 6·25동란을 겪어야 했고 보리고개의 주림 속에서 학교를 다녀야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파월장병이 되었던 그는 제대 후 영자지와 '브리타니카'를 비롯한 언론, 출판에 종사하면서 번역가로 이름을 날린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망중한의 여유를 낚시에 심취해 보내게 되었다. 그의 이 모든 프로파일은 그대로 그의 소설내적 명세서와 맞닿아 있다. 그만큼 그는 삶의 밑천을 고스란히 작품의 세계에 담아내는 실속있는 작가인 셈이다. 그의 휴머니티는 바로 이런 삶의 체험 속에서 우리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진솔한 인생고백이 바로 우리 시대의 고뇌를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정효 소설의 흡인력은 그만큼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